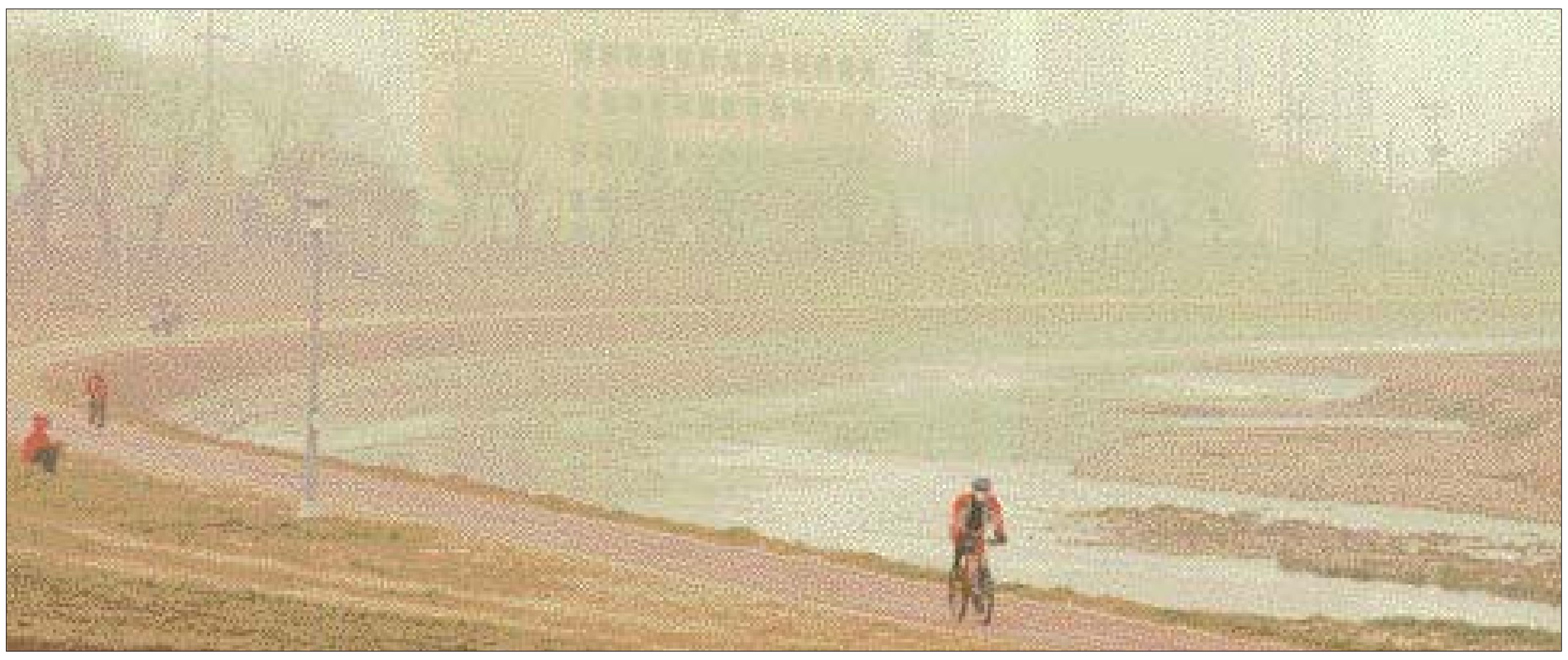


광주천변 삼킨 황사 올해 첫 황사경보가 내려진 2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천변. 가시거리가 500m에 불과할 정도로 짙은 황사가 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개학 첫 날 '황사 공습' 휴교령 검토

호흡기·눈 질환 우려 외출 삼가야

2일 광주·전남지역에 올해 첫 황사경보가 발효되면서 광주·전남지역은 뿌연 먼지로 인해 가시거리가 500여m에 불과해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또 올해는 황사가 평년보다 다소 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호흡기질환 등 시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초·중·고교가 일제히 입학·개학하는 3일 새벽까지 황사경보가 계속될 경우 임시 휴업한다는 방침을 정한 채 황사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개학 첫날, 유치원·초·중·고교 비상**=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비상대책반을 긴급 구성하고 소방방재청, 기상청과 협조해 황사에 따른 학교운영 지침을 마련, 일선 학교에 하달했다.

시·도교육청은 3일 새벽 5시까지 황사경보가 계속되면 지역 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가고, 황사주의보로 한 단계 낮춰질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실외활동 자제, 단축수업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중·고교는 경보때 단축수업 등을 실시하고 주의보에는 정상수업을 진행한다.

◇**외출 삼가는 시민들**=휴일인 2일 황사경보로 인해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유명 산과 유원지 등은 한산했다. 약국에서는 마스크와 안약 등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등 황사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 북구 생룡동 패밀리랜드의 경우 토요일인 1일에는 3천500여명이 입장했으나, 일요일인 2일은 절반가량이 줄어든 1천300여명이 입장하는 데 그쳤다. 광주 무등산도 전날에 비해 등산객이 10% 이상 줄어들었다.

◇**황사 발생시 주의점**=황사 특보가 발령되면 가정에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보호 안경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고 특히 미지근한 물로 눈을 헹궈 준 후 양치질 등을 하는 게 좋다.

황사는 콧물·재채기·코막힘·코 가려움증·두통 등을 동반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와 노약자는 주의해야 한다. 실내는 공기정화기로 정화하고 가습기로 일정 습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황사가 눈에 들어가면 각결막 상피세포를 덮고 있는 막을 자극해 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뚜렷한 원인 없이 기침이 3주 이상 지속하면 호흡기 내과를 찾아 검진을 받아야 한다.

◇**황사 오늘까지 지속**=광주지방기상청은 "2일 오후 3시 20분에 발효된 황사경보가 3일 오전까지 계속되다가 오후부터 점차 약해지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달 중국 고비사막 남쪽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농도 최대 1천~6천㎍/㎥의 매우 강한 황사가 현재 서해상에 위치하고 있어 3일 오전까지 강한 황사가 지속하겠다"며 "3일 오후부터는 점차 약해져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상필기자 camus@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 10년 이상 근무 경위 승진대상자 전원

타 경찰서 일괄 전보 '술렁'

광주지방경찰청이 일선 경찰서 한 곳에서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경위 승진대상자 전원을 다른 경찰서로 일괄 전보 조치키로 해 해당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경위 이하 정기인사를 통해 지난해 7월 이후 경위 근속 승진 대상자 중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120여명을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광주청이 개청 되면서 신설된 인사 내부 규칙으로, 개청 이전 경사·경위 승진자의 경우 보통 1~2년 정도의 전남지역 순환 근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위 근속 승진 대상자 인원이 올 상반기에만 160여명으로 많은 점도 한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승진 대상자들은 10년 이상 근무한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되는 것에 대해 내심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간 순환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10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 일하는 것이 더 능률적인 것 아니겠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광주청 인사 담당 관계자는 "다른 부산·대전·대구경찰청도 모두 이 같은 순환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순환 근무를 통해 각 경찰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

경찰서 과장실 벽 없앤다

일선 경찰서의 과장실이 사라지고 사무공간이 개방형으로 재배치된다. 경찰청은 2일 "이달 말까지 전국 일선 경찰서의 과장실 벽을 없애고, 직원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각 과장의 사무공간을 개방형으로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도 이달 말까지 광주 5개·전남 21개 경찰서의 과장실을 없애는 등 사무공간 재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경무·생활안전과 등 행정부서는 칸막이 ▲형사·수사과 등 민원부서는 유리벽 ▲청문감사관실 등 보안성이 필요한 부서는 유리창을 설치키로 했다. 사라질 과장실의 집무 공간 일부는 민원 처리·민원인 대기·직원 회의·민원인 조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각 사무실로 별로 분산돼 있는 강력·폭력·경제·지능팀 등도 형사과·수사과 등 과 단위로 근접·통합 배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과장들이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무 환경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개방적 사무공간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

홍도 해상 화물선 화재

지난 1일 오후 6시10분께 신안군 홍도 북서방 40km 해상에서 1만3천586t급 파나마 선적 퍼시픽선호 기관실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20분 만에 꺼졌다. 이날 불은 승무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퍼시픽선호는 석탄 2만1천t을 싣고 지난달 28일 중국 황허(黃河)항을 출발해 타이완 카오숑(高雄)항으로 향하던 도중 기관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목포해경은 2일 퍼시픽선호가 기관실 화재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예인선 2척을 현장에 보내 사고 선박을 목포항으로 예인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불끄던 40대 질식사

지난 1일 낮 12시40분께 나주시 운곡동 가야산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5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임야 100여㎡이 탔으며, 불을 끄던 정모(47)씨가 연기에 질식돼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알바생 정보 빼내 인터넷 대출 사기

수십차례 수억원 챙겨

주차관리용역업체에 근무하는 20대 직원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대출을 받고 달아났다.

광주서부경찰은 2일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속여 대출 서류를 건네받은 뒤 수십차례에 걸쳐 대부업체로 부터 수억 원의 돈을 빌려 달아난 황모(25·광주시 남구)씨를 사기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백화점 주차장에 근무하는 황씨는 지난 2006년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 C대학교 재학생 김모(23)씨 등 아르바이트 대학생 14명의 신상정보를 이용, 한 차례에 200만~700만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대출을 받고 달아난 혐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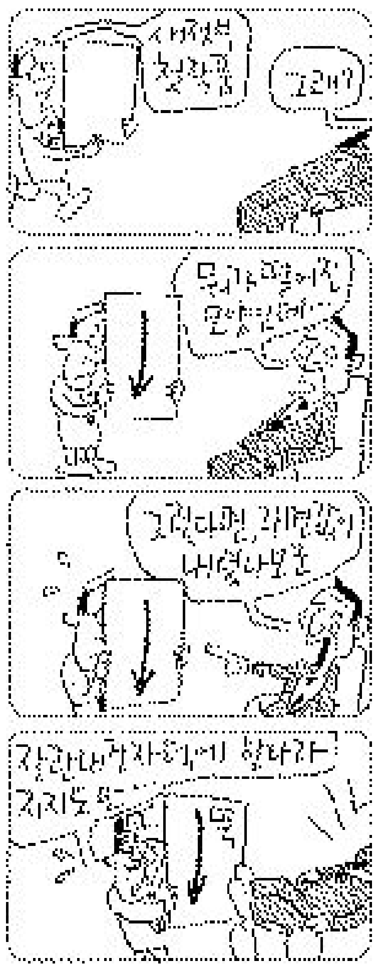
황씨는 평소 친분을 쌓아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 '내가 군대를 빠지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속여 인감증명서와 재학증명서 등의 대출서류를 건네받아 S상호저축은행 등 6곳의 대부업체로부터 돌아가면서 돈을 빌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광주 북부·남부·광산경찰 등에도 황씨에게 사기를 당한 대학생들의 고소가 10여 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황씨가 대부업체의 본인확인 절차가 전화통화로 간단히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빌려 확인과정을 통과하는 등 대부업체의 허술한 대출과정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 한 번도 보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의 허술한 대출관리가 부른 전형적인 사기범죄"라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참 〈7447〉 김종두



멧돼지 농장 탈출 '소동'

쌍나팔

○…광주의 한 농가에서 기르던 멧돼지 두 마리가 농장을 탈출한 뒤 인근 시설하우스 주변에서 서성이다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에게 1시간여 만에 포획.

○…광주북부소방서에 따르면 1일 오후 4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 주변에서 몸무게 40~50㎏의 멧돼지 두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것.

○…119구조대와 경찰 2명은 주민들과 함께 한바탕 소동을 벌인 끝에 1시간 만에 맷돼지들을 붙잡았는데, 119구조대원은 "다행히 농작물과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붙잡은 멧돼지를 곧바로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주인 김모(45)씨에게 인계.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